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요인 정보전달의 중요성



한국산업보건학회 산학협동이사 · 한국쓰리엠
이민철

지난 2월 안전보건공단(KOSHA)은 “메탄올(메틸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고(KOSHA ALERT, 2016-1호)”를 발표하였다. 본 메탄올 중독사례가 발생, 보고되면서 급성 중독성 질환의 보건학적,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며 사후조치를 취하느냐에 대해 당연히 고민하여야 하겠지만,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메탄올의 경우 이미 산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물질이며 독성에 관해서도 산업보건 관련자들에게는 상당히 기본적인 기초지식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알려진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런 심각한 수준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가? 처음 사고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나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급성중독이 발생한 근로자 모두가 현장에서의 메탄올 사용 여부 또는 메탄올의 독성 및 사용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관리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교육도 제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돌려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근로자들이 작업중 메탄올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독성과 사용조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조건은 해당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예방활동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자발적 작업 행동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안전과 생명에 관한 욕구는 본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에 상반된 각종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작업환경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므로, 이러한 환경 내에서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한 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원하는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그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내용이 지적 이성에 기본을 둔 높은 지식이 아니므로 쉽게 수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작업장의 관리자 및 근로자들은 “귀찮다”, “지금 필요 없다”, “이미 알고 있다” 등과 같이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요인 정보전달(Hazard Communication)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정보 부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물론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행위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작업 행동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 등 환경 및 공학적인 다양한 목적들도 포괄하고 있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 관점의 목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안전보건 교육은 인간 측면에 대한 사고예방 수단의 하나인 동시에 안전한 인간 형성을 위한 항구적인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과는 달라,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결실을 나타내게 된다. **“일은 일, 안전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식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안전보건교육에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히 작업행동 그 자체와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교육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으로 습득한 것을 기억장치에서 제거하고 작업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주문한다. 이와 같은 주문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실제 행동으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생산작업의 본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안전보건교육에서 주문하는 여러 사항들의 현실적 차이점이 가지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인 지도와 직접 참여에 의해 시정되고 습관화 되어야 한다. “작업에 의한 안전행동의 습관화” 이것이 바로 안전보건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 수를 채워 숙제를 마치듯 수동적인 태도와 피교육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방향적 전달교육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소 충격적이었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안전보건교육과 위협요인 정보전달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